



“새만금 신공항 중대 도전 흔들림 없이 대응에 총력”

김관영 도지사, 범원 판결에 “항소심서 필요성·정당성 입증해야”

9월 정기국회 관련 “전북의 목소리 입법·예산 반영토록 주도하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12일 간부회의에서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 1심 판결과 관련해 “과거 새만금 방조제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감을 갖고 흔들림 없도록 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1심 판결에 대해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 추진이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다”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 논리를 정교하게 정리하고, 국토부와 협력해 즉시 항소 절차에 돌입할 수 있도록 도의 의견을 적극 개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항소심에서 새만금 국제공항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며 “원고 측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도 국토부와 긴밀히 협력해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새만금 사업 차질로 인한 공익적 피해를 강력히 어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주공항 건설 당시의 대응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김관영 지사는 “9월 정기



국회는 기회의 창”이라며 “국회의 흐름에 발맞춰 전북의 목소리가 입법과 예산에 반영되도록 주도적으로 나서자”고 당부했다.

국회단계에 들어선 국가예산과 관련해서는 “정부안에서 누락된 핵심 사업을 되살릴 초석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며 “비밀영사유를 철저히 분석하고, 국회와 정부를 설득할 논리와 명분을 갖춰 반전의 기회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정기국회는 지역의 목소리를 중앙에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라며 “대정부 질문으로 현안을 부각시키고, 법안 처리를 통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도록 빈틈없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앞둔 주요 사업과 관련해 “예타는 대형사업의 첫 관문이자 가장 큰 고비”라며 “논리를 촘촘히 보강하고 부처와의 긴밀한 논의를 통해 예타 통과 또는 면제를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안에는 소비쿠폰 등 도내 경기회복을 위한 필수사업이 다수 포함돼 있다”면서 “핵심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도의회의와 소통을 강화하고, 만전의 대응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의 활발한 소통 기조와 관련해 “대통령, 국무총리 등 주요 발언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국정방향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 시책과의 접점을 확대해 도정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 전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는 “정부재정과 민간자본의 연계를 통해 지역개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실효적 수단”이라며 “타 시도의 진행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전북형 사업모델을 조속히 발굴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최근 중앙부처 주요 관계자들의 전북 방문에 대해 “새 정부 출범 초기의 국정동력이 강한 시기를 활용해 장·차관들의 전북 방문을 도정 현안 해결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며 “현장 방문 시에는 주요 현안을 선제적으로 건의하고, 후속 대응까지 철저히 행기라”고 당부했다. /이만호 기자



국제 스포츠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아프리카 나미비아 수도 빈트후크를 방문한 김중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가 나미비아 U-11 유소년 축구 국가대표팀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청 제공)

아프리카와 ‘맞손’... 국제 스포츠 네트워크 강화

도, 나미비아 정부와 ‘드림 키즈 스포츠 캠프’ 추진 의향서 체결

청소년 초청해 축구 등 스포츠 활동 진행... 문화·교류와 병행

11월 나미비아 U-11 유소년 축구 국가대표팀 전북에 초청키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아프리카 나미비아 수도 빈트후크에서 나미비아 정부와 청소년 스포츠 교류 협력을 위한 의향서를 체결하며 스포츠 외교 교두보를 마련했다. 이번 협력은 전북자치도가 추진하는 국제 스포츠 네트워크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4박 7일 일정으로 나미비아와 잠바웨이를 찾은 전북특별자치도 아프리카 출장단(단장 김중훈 경제부지사는 11일 빈트후크를 방문해 나미비아 교육·혁신·청소년·스포츠·예술·문화부(장관 산 옛 스타인캄프)와 ‘드림 키즈 스포츠 캠프’ 추진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드림 키즈 스포츠 캠프’는 청소년 간 우정을 키우고 스포츠를 통한 상호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교류 프로그램이다. 전북과 나미비아가 번갈아 청소년을 초청해 축구와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진행하고 문화와 교류를 함께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올해 첫 시작으로 전북자치도는 오는 11월 나미비아 U-11 유소년 축구 국가대표팀을 초청키로 했다. 이들은 전북 유소년팀과 친선 경기를 갖고,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하며 양국 청소년이 서로를 이해하는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스포츠를 매개로 한 지속가능한 교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도 아프리카 출장단은 나미비아 수도 빈트후크에서 열린 협약식 이후, MTC HOPSOL 유소년 축구리그의 홈구장인 Jan Mohr 축구장을 방문해 나미비아 유소년 축구 국가대표팀 선발 평가전을 관람했다. 이 자리에서 전북 현대모터스 기념 축구공과 머플러를 전달하며 스포츠 우정을 다지기도 했다.

또한 현지 대통령 영부인 에파프라스 덴가 엔다이트와를 예방하고, 11월 방한 시 유소년 대표팀 단장으로 동행을 요청하는 등 스포츠 분야 외에도 전북자치도와 나미비아의 산업, 경제, 문화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 관계를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나미비아는 아프리카 남서부에 위치한 인구 302만 명, 면적 82만4,292㎢ (한반도 약 3.7배)의 국가로

다이아몬드, 우라늄 등 풍부한 광물 자원과 태양력·풍력·생물에너지원(Biomass) 등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1990년 대한민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한 이후 우호 관계를 이어왔으며, 전북자치도와는 올해 5월부터 스포츠 분야 외교 협력을 추진해 왔다.

김중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나미비아 정부 및 유소년 축구 단과의 스포츠 외교 협력을 통해 국제 스포츠 행사 유치에 위한 아프리카 지역의 교두보를 확보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전북자치도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글로벌 스포츠 외교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도, 농어민 공익수당 추석 전 조기지급... 농어업인 단위로 개편

16만여명에 총 756억원 지급... 지역화폐로 전북 경제 선순환 기대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농어민을 대상으로 하는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을 확정하고 15일부터 추석 전까지 지급을 완료한다고 밝혔다.

올해 지급액은 총 756억원으로, 작년보다 37억원 늘었으며 지급 인원도 4만6,497명이 증가한 16만6,303명에 달한다.

지급 금액은 1인 가구 6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인당 30만원으로 실제

농업인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신청은 지난 3월부터 6월 말까지 시·군·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받았으며, 자격 검증을 거쳐 최종 대상자를 확정했다. 신규 농어업인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주소지와 경영체 등록 요건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했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촌 공동체 유지, 안전한 먹거리 생산, 농어촌 문화 보존 등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원하는 제도로, 전북이 2020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올해부터는 지급 방식이 ‘농어가 단위’에서 ‘농어업인 단위’로 확대 개편돼 청년, 여성 농어업인 등 가족 단위 활동자들도 수혜를 받는다.

수당은 도내 14개 시·군 전체에서 지역화폐로 지급돼 지역 상권에서만 사용된다. 이에 따라 도는 756억원이 도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http://council.jinan.go.kr>

군민과 함께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진안군의회!

진안군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진안군의회

<http://council.jinan.go.kr>